

- 조사일자 : 2003. 2. 6.
- 조사장소 : 제주시 용담동 양창보 심방댁
- 조사자 : 김현선 외
- 구연자 : 양창보
- 채록(TAPE) · 전사 : 강정식

동동네는 납신 자(申字), 신씨 임관중. 우렁이는 창가지여.<sup>1)</sup> 저 이상굴은<sup>2)</sup> 차가지.<sup>3)</sup> 차가진데 옛날 홍괄호라는 베실을 가진 하르방이 있어십니다. 잇었는데 그 하르방이 어디에서 탄생(誕生)을 허엿는가 허면은 홍목사(洪牧使)가 제주도(濟州島)로 도임(到任)을 허여서 기생첩(妓生妾)을 헤여서 난 것이 아덜을 나난(낳으니). 첩에 조손이난(子孫이니) 들앙(데리고) 가지도 못 허고, 그냥 제주도에 떼여동(떼어두고) 가부니까(가버리니까). 그때에 홍괄호 하르방이 어디 사는고 하니, 이싱굴 우에 높은믈이라는 믈에 쪼끄만 혼 초가집 허나 지언, 거기서 살명(살면서). 게서(거기서) 장가를 갖는데 딸은 허나 나서(낳았어).

경(그리) 허연 홍목사가 서울로 올라가난, 간 다음에 홍목사 조카가 따시(다시) 제주도 목사로 내려오게 댜난, 조카를 불러놓고,

“니가 목사로 들어가면은, 아무 때 내가 아덜을 하나 낳으니(낳아두었으니) 그거나 혼번 좇아보라.”

“경 허겠습시다.”

목사로 부임(赴任)을 허니, 선배(先輩) 후배(後輩) 가마를 둘러타고, 제주도 일주(一週) 순력(巡歷)을 딱 돌아오는디, 동(東)으로 들어서 서(西)으로 쑥 웃한질로<sup>4)</sup> 돌아오단, 저 광령(光令)<sup>5)</sup> 높은, 이싱굴 높은믈에 딱 닿으니, 난데없이 쏜나기비가 쏟아진다.

“아이고, 이거 가지 못허겠습시다.”

“그럼 여기 군막(軍幕) 지어라.”

헤 가지고, 지어놓고, 비 으지(依支)를 허여.<sup>6)</sup> 목사님이 좌정(坐定) 허연(해서) 딱 앓았더니, 그 옆에 보니 초막(草幕)이서 불이 바롱허게(희미하게) 싸지난(켜지니), 아이고 영문(營門) 도사령(都使令)보고,

“저기 가봐라. 어떤 사름이 살고 잇느냐?”

딱 가니, 딱 허니 모시명,

“이름이 머냐?”

“나 홍괄호라고 험니다.”

“아이고, 이거 그렇구나.”

해서 목사님안티,

1) 창가지 : 장(長) 가지. 곧 장손(長孫)에 해당하는 가계(家系)라는 말.

2) 이상굴 :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2리의 옛 이름.

3) 차가지 : 차(次) 가지. 곧 한 조상에서 비롯된 후손 가운데 버금에 해당하는 가계(家系)라는 말.

4) 웃한질 : 위쪽 한길.

5) 광령(光令) :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.

6) 비 으지(依支)를 허여 : (~에 의지하여) 비를 피하고.

“스실은 홍괄호라 합니다.”

“아이고, 내가 좇는 사름이 저 사름이로구나. 가서 널 낮만 뉘거든 관덕청(觀德亭)으로<sup>7)</sup> 들어오라 영 허연, 들어오게 허라.”

헤연, 성안으로 들어오단 관덕청에 딱 좌정헤연. 뒷녁날(뒷날) 혼 정오(正午)쯤 뉘여가니, 오시(午時)가 뉘여가난, 홍괄호가 들어간, 의복(衣服)도 너무나 남루(襤褸)허고 들어갈 수가 엇어. 서문(西門)으로 드난(들어가니) 문지기덜이 들어오지 못 허게 허난.

“아이, 목사님이 오랜(오라고) 헌디(하였는데) 무사(왜) 나가 못 들어갑니까?”

경 허난, 그 서문지기 스령(使令)덜이 목사님안티 가서,

“어떠헌 거지 님은 사름이 문에 와서 들어올려 합니다. 목사를 베갯습니다(뵈갯습니다) 허니 어찌 허민 좁니까?”

허니,

“가서 데리고 오너라.”

데려간 보니 참 시상이(世上에) 기가 맥히거든(막히거든). 옷이라는 게 잇십니까. 첩(妾)에 손(孫)이라 친척(親戚)도 없고 형제간(兄弟間)도 아무것도 없으니, 어느 땅이 잇나 [不聽]. 그래도 거 비 의지만 허여 딱 살아가는데. 아이고 홍목사가,

“너, 이디서(여기에서) 가만이 잇어라.”

그디서 옷도 헤여주고, 좋은 맛 좋은 반찬을 찰리멍(차리면서) 맥여도 주고, 영 허단 큰 일뤼(이레)를 살아가니,

“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.”

집으로 돌아가는 혼 일뤼(이레) 사이에 관속(官屬)덜을 보내여 놓고, 그 사는 디 집을 짓뉼, 물로는 천냥(千兩) 짜리 허고 집은 백냥(百兩) 짜리로 딱 좋은 터를 봐서 큰집을 하나 지어주고, 큰, 먹을 군량미(軍糧米) 양식(糧食)덜은 광 7득이(가득하게) 딱 데며주고(쌓아주고). 간 보니깐, 하휴, 이런 부자로 뉘엿구나, 허연.

똥을 난 것이 얼마나 갈람스러와신디,<sup>8)</sup> 금(金)이라. 커가난(커가니) 혼 술, 두 술, 열 다섯 넘어가니 어떤 남자도 그 홍괄호 똥안티는(딸에게는) 덤빌 수가 없고. 하도 키 크고 힘때 씨난(세니), 시집도 못 가고. 어디 상여소리만 나민, 행상(行喪)소리만 나민 가서 선소릴 다 허고. 그 가서 산담을<sup>9)</sup> 둘러노면은 꺾돌은<sup>10)</sup> 큰돌만 세와 놓거든. 남자덜 들르지 못허는 돌이 그 홍괄호 똥이 가서 그 돌을 둘러단(들어다가) 꺾돌도 딱딱 놔주고. 영 허면서 살단(살다가), 그 신칩잇 하르방은 하도 가난허난 장개를 못 가난, 그 홍괄호 똥안티 즈원(自願) 사우(사위)를 헤연 신칩잇 하르방을 딱 돌아가난(데려가니), 가저 홍괄호 똥님아기는 시집을 가난. 남편이란 남편을 똥라서 남편 집일 간 베려보니(살펴보니), 아, 마레이는(마루는) 별 지는 집이라. 아이 별 바는(보이는) 집이.

“하이고, 이 집일(집엘) 어떻(어떻게) 삽니까. 그릅서(갑시다).” 허연.

“가게.”

친정에 돌아단(데려다가) 이젠 외손(外孫) 봉사(奉祀)를 허게 뉘연. 외손 봉사를 헤여 살아가는디, 그게 홍괄호 홍판사(洪判書)가 그 첩에 난 손인디, 그 홍씨할망이 큰 일월(日月)로 [不聽]. 애

7) 관덕청(觀德亭) : 제주목(濟州牧) 관아(官衙)에 있는 정자(亭子).

8) 갈람스러와신디 : 사랑스러웠는지.

9) 산담 : 봉분 주위에 두른 돌담.

10) 꺾돌 : 봉분 주위에 돌담을 둘러쌓아 산담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바깥 네 모퉁이에 세워두는 커다란 바윗돌.



기도 없고, 영 해서 촌촌 외손 봉사로 내려오는 게 신칩이 줄이 번언, 경 해도 그 조상덜을 위로(慰勞)하여 가난 부제(富者)로덜 잘 살아가니.

신칩잇 하르방은 어디를 농사(農事)를 허는고 허니, 저 어시성봉(御乘生峰)<sup>11)</sup> 굽 아래 걸시오름 이라 현 오름이 잇는디, 그디 가서 큰 테역밭디다(잔디밭에다) 이제는 쉼(소)를 내여놓고 밧을 가 는디, 한참 밧을 갈암시니(갈고 있으니), 정의(旌義) 가시오름 가시리(加時里)<sup>12)</sup> 강당장 뜰넘아기 는, 남, 메누리는 남편 병(病) 나난, 대정(大靜)에 약(藥) 지레(지으러) 가는디, 아, 이때 여자가 활 활활하게 걸엄시난(걸고 있으니), 아이고 신칩잇 하르방도 아무딧 하르방 모양, 그 넘어가는 여인 네 얼굴에 반허연, 밧갈단(밭갈다가) 기냥 장기(쟁기)도 내붙어두고 그 여자 뒤에 조차간(좃아가 서), 막 가도 하도 이 여자는 그냥 앞에 걸음만 걷지 한번 되돌아보는 일이 었어, 아이고, 어느만 쫓 가는고 허니, 저 지금의 경마장(競馬場)<sup>13)</sup> 아래, 옛날은 원(院) 동네가<sup>14)</sup> 잇수다. 원이라는 디 가 잇는디, 그 옆에 가면 막산이구석이라는<sup>15)</sup> 데가 잇는데, 그꺄지도 가도 한번 되돌아보질 아니 허난, 뒤에 가명,

“아주망,<sup>16)</sup> 아주망!”

허면서 이제 불른(부른) 모양이라, 확 돌아산(돌아서서),

“아이고, 나 불림수가(부릅니까), 어떻 허연마썸?”

“하도 얼굴이 고난(고우니) 얼굴에 호탕해서(홀려서) 나 여꺄지(여기까지) 뜰라 와시메.”

영 허난,

“아이고 경(그리) 허파(합니까)? 이레(이리) 읍서(오세요), 이레 읍서.” 허연,

아이고, 그 여자도 얼마나 힘때가 썬지(센지), 그 신칩잇 하르방을 막산이구석에 가서 큰 남(나무) 이렇게 해가지고 그디 간 톱 딜여난(들여놓고) 톱 허게 쩍저돈(접히어두고), 딜여놔돈 이젠, 아니 하르방은 그디 쩍저부난 오꼴허게 풀영 나오지도 못허곡, 아, 이젠 서르레(서쪽으로) 훌훌허 게 가단(가다) 보니, 절로(저리로) 어떤 남자가 걸어오라 가난,

“아이고, 그런 게 아니라, 저 막산이구석에 [不聽] 사람이 비명 소리가 납디다. 나는 연약한 여자로서 차마 들어갈 수도 없고, 가당(가다가) 보면은 비명소리가 날 테니 가서 사름 하나 살려동 (살려두고) 갑서.”

지가 훈 걸, 경 허여 오란 보니, 낭(나무) 거림에 딱 쩍저놓고, 사름은 그냥 빠져나가도 못허염 시난(못하고 있으니), 그걸 젿허난(좃혀놓고), 이젠

“이레 나옴센(나오시라고).” 허연,

아, 이젠 그 하르방이 밧가는 디 간 보니까, 소도 도망가버리고, 밧 가는 장기도 문(모두) 부서져 버리고, ‘아이고, 이거 아이(아니) 웰로구나.’ 영 허여 그 해 농스도 못 짓고, ‘이건 어떻 허민 좋고.’ 영 허연, 그 하르방허고 서로 언약(言約)을 맺어시면은(맺었으면) 신칩잇 하르방이 죽을 건

11) 어시성봉(御乘生峰) : 한라산 북서쪽 봉우리로, 제주시 해안동 산 220-12번지 일대에 있다.

12) 가시리(加時里) :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.

13) 경마장(競馬場) :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제주경마공원(濟州競馬公園).

14) 원(院) 동네 :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와 소길리 경계에 걸쳐있던 마을. 조선시대에 제주목과 대정현 사이의 이동경로인 이곳에 원(院)을 두었던 데서 원동(院洞)이라 하였다. 4·3 당시인 1948년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말았다.

15) 막산이구석 : 남제주군 안덕면, 옛 증문면(현 서귀포시 증문·강정·하원동 등) 일대에서 전승되는 장사전설의 주인공 막산이가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곳.

16) 아주망 : 아줌마, 아주머니.

다. 하르방이 죽을 건디, 서로 언약을 아이 맺어부난, 약 지언 간 먹도 못허고, 가시오름 강당장  
칩이 며누리가 그 집이 남편은 죽어 불고.

하도 흉년(凶年) 드난, 이 하르방이 포목(布木) 장수를 허연. 포목을 잔뜩 걸머지고(짊어지고)  
므을므을마다

“미녕도 삽서. 베도 삽서.”

허멍 플레(팔러) 땡기논디(다니논데), 감감 허는 것이 저 가시리 들어간. 가시리 들어간 혼 팡에  
다<sup>17)</sup> 떡 부려놓고, “미녕 삽서.” 허단 보니, 그 약 지레 가던 여자가 넘어가다가 ‘저거 아무 때  
나신디(나에게) 저거 얼굴에 반해서 똑라온 하르방이 분명허구나.’ 경 헤연 들어간, 그 할망네 집  
이 메누리가.

“우리 집이 오면은 내가 사커매(사갯으니) 옹서.”

신칩잇 하르방은 똑란 들어간. 켓문을 열더니 미녕이니 베니 므딱 담안 톱 켓 톱 잠가두고, 좋  
은 밥을 허연 혼 끼를 딱 멕이고, 그날 저녁이야 비로소 서로 언약을 맺고 혼 이불 소곶에 누원  
자게도 뉘고. 자게 뉘연 혼를 이틀 잇단.

“이제랑 혼저(어서) 고향으로 갑서(가세요).”

갑서 허연 이젠 나오란 베려보니, 물도 아홉, 쉼도 아홉에다가<sup>18)</sup> 곡식(穀食)을 잔뜩 실런.

“이걸 몰양(몰고) 갑서.”

몰아앗어네(몰아가지고) 그 말므쉬(마소)를 떡 앞이 몰아앗전 오논디, 질(第一) 뒤에 잇는 물이  
오당보민(오다보면) 짐 트라저(비틀어져) 불곡(버리고), 발류당(바로잡다가) 보민(보면) 짐 트라저  
불곡, 이놈으 거 짐 트라지니까는 털어지니깐(떨어지니까) 그것만 바루고(바로잡고) 바루고 허던  
것이 이상굴꺾지 들어완. 들어오란 그 집이 똥덜 불러놓고.

“이 곡식(穀食)덜 말[斗]로 뉘라.”<sup>19)</sup>

젠(그래서) 이제 혼말 두말 막 뉘여(헤아려) 오논디, 마지막엿 것이 뉘단 보니까 이만헌 베염  
(뱀)이 혼나 거기에 잇어. 그 마다리(麻袋)에다가 떡 부떠(붙어) 앓어 잇어. 그 베염을 모신 게 칠  
성(七星)으로 떡 모시난, 그날부떠 부자로 뉘난, 마다리에 부떠온 칠성. 또 서부락(西部落)은 전싱  
(前生) 궂은 심방. 거 유래(由來)가 뉘여난 일이 잇습니다.

— 濟州市 龍潭洞 男巫 양창보 口誦

현용준·강정식·김현선, 『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』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2006, pp.184-188.

17) 팡 :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릴 때 도움이 되게 납작한 큰 돌 따위로 만든 대(臺).

18) 물도 아홉, 쉼도 아홉 : 말도 아홉, 소도 아홉 마리. 부자(富者)의 재산(財産).

19) 뉘라 : 헤아려라.